

Learning-Centered Courses Planning based on Backward Design in Elementary Music Curriculum

Yang, Soh Yeong¹⁾ (Seoul ShinYongsan Elementary School, Teacher)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learning-centered courses and explore elementary music curriculum plans which adopted backward design. For this, i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centered courses and backward design. It then applied a backward design model to such courses as a basis for revised 2015 school curriculums with a goal of searching for a new method in elementary music curriculums. A learning-centered course is an internalization process for students to realize independently while exploring knowledge through sharing, starting with active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backward design is a strategy that students can use to expand and apply what they learned, beyond the knowledge itself. In fact, it can be compared to 'learning orientation'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new situations by students in a self-directed fashion. After reviewing backward design-applied, learning-centered course plans for elementary music curriculums,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alanced teacher-student and inter-student interactions are important. Second, teachers are required to work hard for context-centered courses through which students are able to find a way to solve problems in a self-directed manner. Third, a concept of process-centered evaluation needs to be extended. Fourth, inter-teacher course reflection and sharing should continue. In this way, the application of a backward design model in learning-centered courses is meaningful in that it implements educational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se findings.

Key Words : Backward design, elementary music curriculum, learning-centered course, Understanding by Design (UBD)

1) Corresponding Author: Yang, Soh Yeong, Teacher, Seoul ShinYongsan Elementary School, 255 Ichon-Ro, Yongsan-Gu, Seoul, Korea, 04423 / E-mail: pianosysy@sen.go.kr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배움중심수업 방안 연구

양소영¹⁾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교사)

< 요약 >

이 연구는 배움중심수업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 수업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을 설계하였다. 배움중심수업은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에서 시작하여 남과 나눔을 통해 지식을 탐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내면화 과정이다. 백워드 설계 또한 학생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배운 것을 스스로 확장하고 적용하여 수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중심과 맥을 같이 한다.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배움중심수업 방안을 고찰한 후 얻은 시사점은 첫째, 교사와 학생, 학생 간 균형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둘째, 교사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중심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 간 수업 성찰과 나눔의 자리가 지속하여야 한다. 배움중심수업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인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적용은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여야 할 배움중심수업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음악교육 전반에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백워드 설계, 초등학교 음악과, 배움중심수업, 이해중심교육과정

1) 교신저자: 양소영, 교사, (0442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55, 서울신용산초등학교 / E-mail: pianosysy@sen.go.kr
논문투고일자: 2020. 5. 14 / 심사일자: 2020. 5. 14 / 게재확정일자: 2020. 5. 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던 수업 정책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예전의 교육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학생의 수동적 수업 참여, 단편적 지식 전달, 일제식 수업 개선 요구 등의 비판을 듣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는 ‘학습자중심 수업’은 학습자인 학생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 절차 안내나 간접적 참여, 관찰 등 소극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며 전반적 교육 정책에 대한 자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움’은 한자로 쓰면 학(學)으로, 윗부분을 형성하는 구(臼)와 효(爻)는 두 손으로 세계상을 감싸고 있는 ‘두 손의 부지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아랫부분 자(子)는 ‘무지몽매한 어린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쳐 보면 ‘부지런히 노력하여 스스로 깨우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hin, 2007). 따라서 현대교육학적 의미에서 모든 배움은 적극적인 자기 학습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Jung(2019)은 배움중심수업에서 핵심원리는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서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수업의 행위인 가르침과 배움이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학습자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새로운 ‘상황’ 중심수업을 언급하면서 주체가 되는 교사와 학생, 수업 행위인 가르침과 배움, 이와 더불어 교과서와 수업 자료 같은 교육 내용과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 교실의 분위기 등 모두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Jung, 2019).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이란 적극적인 자기 주도 학습에서 시작하여 남과 나눔을 통해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는 소통 상황을 마련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Oh(2019)는 배움중심수업이란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타인과 더불어 고차원적 사고 향상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 암기식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의 심층적인 ‘이해와 탐구’를 강조한다(MOE, 2016). 여기서 말하는 ‘이해’란 학생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배운 것을 확장하고 종합하고 적용하여 그것을 수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교과 내용의 큰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Kim, 2016).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 과 백워드 설계 방식의 ‘이해중심교육과정’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백워드 설계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해’ 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설계된 모형이며 알게 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량’ 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Kang & Lee(2013) 는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2.0 버전의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국어과 단원 안을 개발하여 ‘이해’ 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근 교육 활동의 지향점이자 하나의 큰 관점이기도 한 배움중심수업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Jung, 2019; Kim, 2016; Nam, Ghil, Oh, & Roh, 2014), 음악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 교육 정책에서 중심이 되는 배움중심수업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 수업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워드 설계와 배움중심수업의 특징을 비교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일정한 모형이나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배움중심수업에 백워드 설계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음악과에 새로운 방법을 구안하고 배움중심수업을 초등 교육 현장에 실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현 교육 정책에 중심이 되는 배움중심수업을 이해하고 이를 초등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수업 정책 실천의 하나로 백워드 설계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 수업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음악교과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자 음악 역량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한 학년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 교육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 수업 모형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이해중심교육과정, 즉 백워드 설계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II. 배움중심수업과 백워드 설계

교사가 가르친 것보다는 학생의 배움을 강조하고 단순히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백워드 설계는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다(Ohn et al., 2016). 따라서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이해를 목표로 탐구 과정 안에서 직접 실천을 위한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1. 배움중심수업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습자 중심’이라는 용어가 수업 정책에 빈번하게 등장해 왔다. 이는 교실과 교과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사고와 배려, 학생의 능동적 참여 등을 강조한다. 이 용어와 함께 ‘배움중심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개념도 함께 강조된다.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안에서 소통과 배려를 통해 남과 어울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배움을 돕는다는 뜻으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균형적 상호작용으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주희는 「論語或問」에서 ‘배움’을 유기적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배움의 과정과 단계

	단 계	상 태	관 계
배움	시 작	개인적 기쁨(悅)	나와 나(내면의 세계)
	중 간	타자와 더불어 즐거움(樂)	나와 너(내면과 외면의 만남)
	마 칩	인간 완성(君子)	나와 우리(내면의 강화와 자연스러움)

출처: Shin(2007), p. 153.

주희가 말하는 배움의 첫 단계는 즐거움으로 마음이 스스로 흡족하여 기쁨이 되는 상태이고 중간 단계는 배움으로서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단계이며 마지막 배움의 최종 단계는 자기 성찰의 강화와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만족의 과정을 거쳐 남과 즐거움을 나누는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완성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적극적인 자기 학습

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또 Lim(2017)은 배움중심수업의 단계를 배움 열기-배움 활동-배움 정리의 세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배움 열기’는 개별 활동으로 교재를 통해 스스로 연구하며 공부하는 단계이고 ‘배움 활동’은 협동하며 친구들과 서로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마지막 ‘배움 정리’의 단계에서는 서로 알게 된 것을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배움’은 흥미 분야를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 다시 스스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학생은 배움의 주체,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이 두 주체의 균형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창기 배움중심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학생’만을 위한 교육과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습자중심 교육에서 교사의 참여가 소극적이면서 학생 위주의 교육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래는 경기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배움중심수업의 연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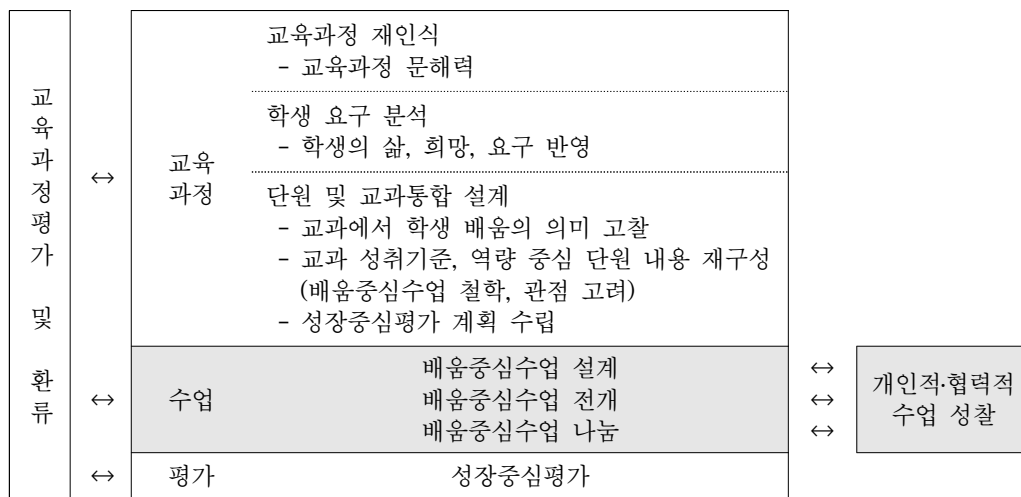
<표 2> 경기도교육과정에 제시된 배움중심수업의 연혁

시기	수업 정책	정책 추진 과제
2010	배움중심수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중심수업 개념 도입
2011	학습자 배움중심의 수업 혁신으로 모든 학생의 성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 소통과 협력의 수업 만들기 • 일상적인 수업 공개 • 기초학력 책임지도
2012	배움중심수업으로 모든 학생의 성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 소통과 협력의 수업 만들기 • 일상적인 수업 공개 • 기초학력 책임지도
2013	배움중심수업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협력의 수업 만들기 • 수업 공개의 일상화
2014	배움중심수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협력의 수업 만들기 • 독서토론 수업 내실화 •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2015	배움중심수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운영의 정상화 • 공감 수업(관계 중심 수업, 비지시적 수업)과 수업성찰 •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개발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
2016	배움중심수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운영의 정상화 • 학생 중심의 창의적 수업 실시 • 함께 성장하는 수업 성찰·나눔

*출처: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2016), p. 7.

<표 2>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1년~2013년까지 학습자중심, 학생 성취 지원, 성장 지원 등 교사와 학생의 균형보다는 학습자위주의 지원에 더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배움중심수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소통과 협력 수업 만들기, 관계 중심 수업, 함께 성장하는 수업 성찰 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토의·토론수업, 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교수학습 내용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맞춤형 수업, 소집단 공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 등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010년 초창기 배움중심수업은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을 반영하여 수업의 중심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로 설정하고 있지만, 점차 2015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학습자중심 수업’이 갖는 장점을 수용하되 소극적이던 교사 역할을 가르침의 주체로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교육 활동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배움중심수업의 이해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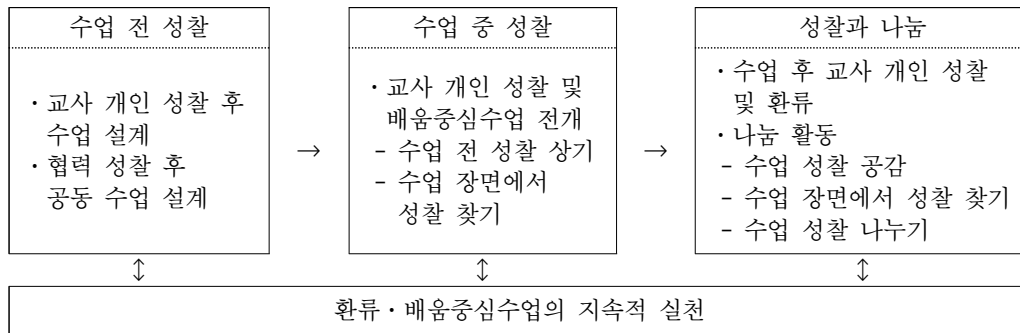
[그림 1]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모형

*출처: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2016), p. 21.

배움중심수업의 시작 단계인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교과 역량을 파악하여 수업 실천의 바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이 수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움중심수업 과정에서는 평가가 포함된다. 기존의 평가에서처럼 수업 후 진행되는 분리된 활동이 아닌 일련의 수업 과정 안에서 교

수 학습 활동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워드 설계에서 목표 설정과 더불어 교수·학습 설계 이전에 평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수업>의 설계 과정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 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수업 자료를 재구성하여 배움 활동을 설계하게 된다. 수업 전개에서는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적합한 수업 모형과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때 교사 개인의 수업 성찰과 교사 간 협력 성찰은 수업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환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나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수업 진행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배움중심수업의 성찰과 나눔 과정(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6)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배움중심수업 성찰과 나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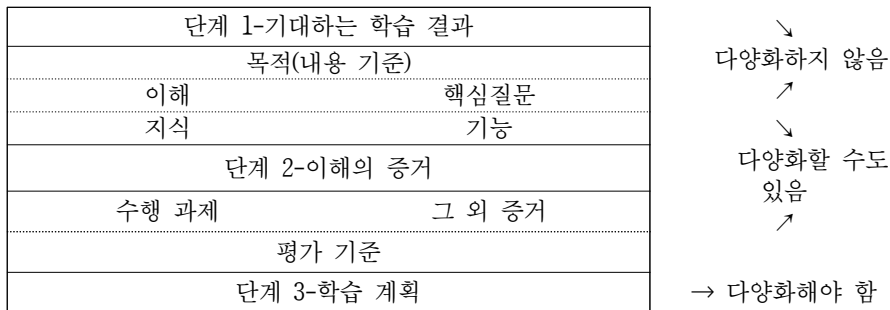
*출처: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2016), p. 24.

[그림 2]와 같이 성찰과 나눔의 과정은 수업 전 전반적인 교사 개인의 성찰을 시작으로 수업 중에도 지속해서 교사 자신의 수업에 대한 환류와 자기반성이 이루어지며 수업 후에는 나눔 활동으로 함께 협력적 성찰 나누기가 이루어진다. 교사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성찰에 대한 끊임없는 협력 지원과 수업 성찰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 역시 중요한 배움중심수업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성찰과 나눔 단계는 수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환류 및 지속적 실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설계 단계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 설계의 바탕을 마련하고 학생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성취기준, 핵심 역량을 연계한 배움 활동을 구안하게 된다. 전개 단계에서는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교사와 학생의 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과 배려의 자세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업 전, 중, 후의 교사·학생 수업 성찰을 통해 나눔과 환류 계획을 실천한다.

2.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 모형은 이전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과 다르게 교육 목적과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역방향인 ‘백워드(backward)’ 방식이다 (Kim, 2016). 이를 다른 말로 ‘이해중심교육과정’ 이라고 하는데, 학교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습에 있어 ‘이해’ 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 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생의 수업을 도와주는 데 있다. [그림 3]은 Wiggins & McTighe(2012)가 제시한 백워드 설계의 틀이다.



[그림 3] 백워드 설계 틀

*출처: Kim, Ohn, & Jang(2017), p. 69.

백워드 설계 1단계는 기대하는 학습 결과로 이 과정이 목표를 정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업 목표이자 바라는 학습 결과가 된다. 전체 수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개의 목표를 계획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한 지식, 기능, 이해의 증거를 제시하는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계획한 목표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내용을 고민한다. 백워드 설계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가 수업의 실천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평가가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보다 먼저 이루어진다(Ohn et al., 2016). 마지막 3단계는 1단계에서 기대하는 학습 결과에 따라 평가 계획을 세운 후 이의 실천을 위해 학습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된다. 교사는 1, 2단계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우고 수업 성찰을 통해 지속해서 환류하며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다음은 [그림 3]의 Wiggins & McTighe 백워드 설계 템플릿을 바탕으로 Ohn et al.(2016) 연구에서 개발한 단원 설계의 틀이다. 기존의 템플릿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나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몇 가지 수정되었다.

<표 3> 백워드 설계를 바탕으로 한 단원 설계의 틀

단계 1-기대하는 학습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개념 •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 • 일반화된 지식 • 기능 •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질문 • 태도
단계 2-평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평가 방법
단계 3-교수·학습 계획		

출처: Ohn et al.(2016), p. 53.

백워드 설계 단계 1은 성취기준과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핵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 기능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을 진술하는 것으로(Ohn et al., 2016), 이때 기능은 사고기능이나 탐구기능과 같은 과정적 지식이고 지식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가깝다. 일반화된 지식은 앞서 언급한 ‘이해’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사용된 용어와 같도록 ‘일반화된 지식’으로 대체한다. 평가 계획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존의 객관식 평가에서부터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스스로 평가 등 미리 계획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수행과제’는 목표(Goal), 역할(Role), 대상(Audience), 상황(Situation), 수행(Performance), 기준(Standard) 등 여섯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으나 하나의 수행과제가 이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행과제에 따라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과정에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침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교수·학습 계획은 마지막 3단계에서 수행과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렇듯 백워드 설계에서 학습계획은 교과서나 지도서 중심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수행과제를 기준으로 계획된다.

3. 백워드 설계와 배움중심수업

학습자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별화된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배움중심수업(Kim, 2015)은 수업 방법이나 모델이 아닌 교육 활동의 관점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 백워드

설계 모형과 같은 수업 모형의 적용은 배움중심수업을 초등 교육 현장에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백워드 설계 모형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배움중심수업 일체화 모형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백워드 설계 모형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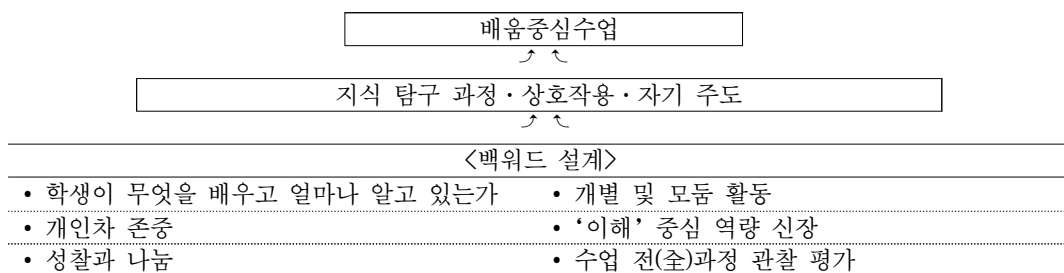
백워드 설계 모형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모형
<p><단계 1-기대하는 학습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 • 핵심개념 • 지식 • 일반화된 지식 • 기능 • 교과 역량 • 핵심 질문 • 태도 	<p>교육과정 재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문해력
<p><단계 2-평가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 • 그 외 평가 방법 • 평가 기준 	<p>교육과정</p> <p>학생 요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삶, 희망, 요구 반영 <p>단원 및 교과통합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 역량 중심 단원 내용 재구성 - 성장중심 평가계획 수립
<p><단계 3-교수·학습 계획></p> <p>도입 -</p> <p>수행 탐구 적용 실천</p> <p>정리 -</p>	<p>수업</p> <p>배움중심수업 설계</p> <p>배움중심수업 전개</p> <p>배움중심수업 나눔</p> <p>평가</p> <p>성장중심평가</p>

<표 4>는 백워드 설계 모형과 배움중심수업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모형을 비교한 표이다. 백워드 설계는 단계 1~3으로 나누어 기대하는 학습 결과와 평가 계획, 교수·학습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움중심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백워드 설계 단계1에 해당하는 배움중심수업은 <교육과정>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모형 모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살펴 재구성 계획을 세우고 학생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백워드 설계 단계2의 평가 계획이 배움중심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로 나타나 있으나 평가 계획 수립은 <교육과정> 단계에서 함께 수립되어야 하므로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배움중심수업에서 언급하는 성장중심평가도 수업 후 진행되는 동떨어진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 단원 설계 - 교수·학습 활동까지 배움중심수업과 백워드 설계가 거의 비슷한 체계로 일관성 있게 계획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백워드 설계, 즉 이해중심교육과정과 배움중심수업의 특징을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백워드 설계와 배움중심수업의 특징 비교

특징	백워드 설계(이해중심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학생 관점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우는가에 초점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초점
개인차	개인차 존중	개인차 존중
강조점	자기주도 학습, 사회적 맥락 강조	자기주도 학습, 실질적 경험을 통한 배움 강조
평가	과정중심평가와 성찰	성장중심평가와 성찰, 나눔

백워드 설계와 배움중심수업의 특징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배움중심수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학생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학생의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배우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배움중심수업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습자와 교사의 협력, 균형적 상호작용까지를 언급하는데, 이는 철학적인 측면의 배움중심수업이 가지는 폭넓은 견해로 볼 수 있다. 개인차나 학습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개인차를 존중한 맞춤형 수업과 학생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백워드 설계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배움중심수업도 실질적 경험을 통한 배움을 강조하면서 일치점을 보인다. ‘평가’도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평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단계와 평가가 분절된 활동이 아닌 수업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성찰과 나눔을 끊임없이 계획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배움중심수업과 백워드 설계 모형의 관계

최근 수업 정책의 큰 흐름을 이끄는 ‘배움중심수업’은 [그림 4]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백워드 설계와 지향하는 관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워드 설계에서 시도하는 개인차 존중, 개별 및 소집단 공동학습, 이해중심 역량 신장, 평가 관련 성찰과 나눔 등 이러한 지식 탐구 과정을 통해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할 수 있다.

Ⅲ.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과 배움중심수업 방안

여기서는 지금까지 백워드 설계와 배움중심수업의 다양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 수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개념은 ‘가락’으로 관련 지식에 있어 음의 높고 낮음, 가락의 흐름 등으로 연결된다. 백워드 설계 틀은 Ohn et al.(2016)의 연구에서 개발한 <표 3>의 설계 모형을 주축으로 하되 배움중심수업에서 중시하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1. 기대하는 학습 결과

1단계 기대하는 학습 결과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전체 수업에서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개념과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기준, 일반적 지식으로 정리한다(<표 6> 참조). 또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활동을 파악해 본다.

<표 6> 1단계 기대하는 학습 결과

성취기준: [4음01-01] 악곡의 특성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핵심 질문
•가락	• 음악을 듣거나 부르며 음악 요소와 개념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한다.	• 어떻게 신체로 음높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 학생 스스로 가락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지식	기능	태도
•가락 •음의 높고 낮음 •가락의 흐름	•자유롭게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몸 계명 구별하기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기	•가락의 흐름 느끼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적극적 상호 작용
교과 역량		학생 선호 활동
음악적 감성, 음악적 소통		소집단 활동 및 토의, 토론 활동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은 박이나 박자, 신체표현 등은 어느 정도 쉽게 따라 하나 가락, 가락의 흐름은 화성 개념에 앞서 음을 민감하게 듣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처음에는 음의 높고 낮음이라는 쉬운 개념에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 가는 것이 수업 진행과 속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2. 평가 계획

백워드 설계 2단계인 평가 계획은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기 전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평가 방법을 논하는 과정이다(〈표 7〉 참조). 여기서는 지식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배움중심수업의 특징을 살려 친숙한 생활 속 이야기거리를 접목한 형태의 ‘지식 탐구’ 수행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수행과제는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교수·학습 계획을 이해하는 내용이자 기준이 된다. 평가는 수업과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어 수업에 지속해서 환류될 수 있는 성찰과 나눔의 형태를 강조한다.

〈표 7〉 2단계 평가 계획

〈수행과제〉 음악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 볼까요?			
<p>와! 오늘은 신나는 ‘음악 미로 탐험’에 참가하는 날! ‘친구인 준우와 함께 도착 지점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랄랄라 라라~ 나나나나나~ 귓가에 살며시 스며드는 가락에 내 마음도 함께 쿵닥쿵닥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준우와 함께 음악이 들리는 곳을 찾아 함께 출발해보자. 출발! 어휴~ 음악이 어둡고 낮아지니까 미로도 고개를 숙여 낮은 자세로 통과해야겠는걸. 어! 가락이 갑자기 깡충! 깡충! 어머니! 여기는 친구와 함께 ‘폴짝’ 건너뛰어야겠는걸. “준우야!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래도 친구 준우와 함께 미로 탐험을 하니 자신감이 막 샘솟는 것 같아! 준우야! 고마워! “어! 그런데 준우야!” “우리는 ‘음악’ 미로 탐험에 참여한 거야. 체육 시간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음악에 집중하며 움직여야 해.” 아! 음악이 머리 위 저 높은 곳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도 빨리 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 볼까? 와! 저기 봐! 도착 지점이 보여.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야지! 갑자기 음악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네~ 와! 도착이야!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 미로 탐험이었어!</p>			
〈수행평가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이해정도를 관찰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 수업을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 • 단계별 과정에 따른 수업 중 학생의 도달도 및 부족한 부분 파악 			
〈수행과제의 평가 기준〉			
단계 평가요소	뛰어남	보통	노력 요함
음의 높고 낮음	음악을 들으며 혼자서 음의 높고 낮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음악을 들으며 혼자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음의 높고 낮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음악을 들으며 친구의 도움으로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







가락의 흐름	노래를 부르며 혼자서 자신 있게 가락의 흐름을 표현한다.	노래를 부르며 혼자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가락의 흐름을 표현한다.	노래를 부르며 친구의 도움으로 가락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음악적 소통	수업 활동에서 친구와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간다.	수업 활동에서 친구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간다.	수업 활동에서 친구와 상호작용이 소극적이며 협업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 외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형 평가 : 음악을 듣고 가락의 흐름을 선으로 나타내기 • 관찰 : 수업 중 관찰에 따른 교사 평가 • 자기평가 : 스스로 자신의 수업 활동을 평가 			

가락의 흐름을 파악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과제로 음악을 들으며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 백워드 설계에서는 수행과제 안에 목표, 역할, 대상, 상황, 수행, 기준 등의 여섯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학교급에 따라 제시하는 수준이나 난이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도 친숙한 이야기거리를 통해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 적절하게 움직임의 이끄는 수행 정도를 판단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이때 신체표현에 있어 체육 시간과 같은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이 아닌 음악에 귀 기울여 자유로움 속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강조한다.

3. 교수·학습 계획

백워드 설계 3단계인 교수·학습계획에서는 지금까지 바라는 학습 결과와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표 8〉 참조).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을바람’, ‘새싹의 노래’ 제재곡을 가지고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한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이 과정을 개별 활동-협력 활동-나눔 활동(Lim, 2017)으로 나누기도 하고 크게 배움 열기-배움 활동-배움 정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Ohn et al.(2016)의 연구에서 개발한 백워드 설계 모형의 틀을 참조하면서 배움중심수업에서 강조하는 수업 형태와 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여 서술한다. 단계는 크게 도입-수행-정리로 나누고 다시 수행 단계를 탐구-적용-실천으로 구분하여 음악과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수행 중 탐구 단계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자유롭게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며 자기 생각을 친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단계이다. 적용 단계는 여러 상황을 통해 스스로 정리된 내용이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학생은 숙련되고 실천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천 단계에서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협업이나 스스로 실천할 기회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표 8> 3단계 교수·학습 활동

단계	차시	교수·학습	수업형태	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질문과 수행과제 소개하기 • 사전 준비 상태 확인하기 	▶ 전체	-
탐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움직이기(가을바람, 새싹의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움직이기 - 학생이 특정 동작이 아닌 음악에 적절한 움직임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기 - 교사는 학생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소극적인 학생과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파악하기 • 게이름으로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랫말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 게이름으로 노래 부르기 	▶ 모둠 ▶ 개별	▶ 진단 - 수업 성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높이 예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들으며 음높이 예상해 보기 - 모둠별로 게이름을 부르며 음높이 신체표현하기 - 교사는 모둠별 음높이 활동을 관찰하며 학생들과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 모둠별로 만든 신체 몸 계명 발표하고 만든 이유 설명하기 	▶ 소집단 공동학습 -토의· 토론	▶ 형성 - 수업 성찰
수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계명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몸 계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 혼자 또는 모둠으로 그룹을 달리하며 연습하기 	▶ 개별 또는 모둠	
		 		
실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계명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이 한 줄로 서서 몸 계명으로 게이름 전달하기 - 마지막 학생이 전달하여 받은 몸 계명 노래 부르기 - 처음에는 한 마디만을 전달하고 점차 마디 길이 늘이기 	▶ 모둠	▶ 형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의 흐름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노래를 부르며 가락의 흐름 나타내기 - 교사는 학생의 손을 관찰하며 수정할 부분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 학습지에 가락선 그려보기 	▶ 모둠 ▶ 개별	- 평가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정리 -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제시 (예: 자기 평가, 관찰 평가, 학습지) -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며 알게 된 것,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성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성찰

핵심 질문과 수행과제를 소개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탐구 과정 설명을 시작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우선 음악을 들으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노래와 함께 게이름도 불러가며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노래를 익힐 수 있게 하고 다음 단계로 음높이를 예상해 가며 모듬별로 움직여보게 한다. ‘음높이 예상하기’는 친구들과 이견을 조율하며 높이를 예상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몸 움직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이때 교사는 관찰을 통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모듬 활동으로 바꾸어 친구와 도와가며 활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몸 계명 익히기’는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단계로, 교사의 몸 계명을 관찰하며 친구의 움직임도 함께 눈여겨 볼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몸 계명에 익숙해지면 몸 계명 놀이를 통해 음높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모듬별로 한 줄로 서서 몸 계명으로 노래 일부분을 전달하면 마지막에 서 있는 학생이 어떤 노래인지 맞추게 된다. 마지막은 가락의 흐름을 스스로 표현해 보는 단계로 교사는 학습지 전에 관찰을 통해 학생의 도달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음악 수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학생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일은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유행처럼 퍼져가는 학습자중심 수업이 교사의 가르침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과 학문의 바탕이 되는 교과 지식(내용), 개념, 이론보다는 학생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여 즐거움이나 오락 내용, 일상생활에 쓸모 있는 지식만을 좇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고 과정을 통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나눔으로서 문제해결과정 등의 특징을 갖는 배움중심수업을 이해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이해중심교육과정, 즉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과 수업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사와 학생, 학생 간 균형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학교 현장은 어느 시기부터 교사 위주, 일제식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부터 학습자의 요구나 관심을 수업 계획에 최우

선으로 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배움중심수업에서 음악 수업은 가르침의 주체는 교사이고 배움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통한 균형적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교사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중심수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사는 음악 수업의 수행과제를 미리 계획하는 데 있어 안내자뿐만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 교실 상황, 수업 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수업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음악과는 진단평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과정’만을 중요시하고 진단이나 총괄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모든 평가가 수업 전체에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사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간 수업 성찰과 나눔의 자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교사 간 수업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닌 각자 수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 스스로 수업에 대한 반성과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된다.

배움중심수업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적용은 교육현장에서 지향하여야 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음악교육 전반에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시도와 실험연구 등이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6).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Learning-Centered Courses*.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urriculum Policy (2016-10). ㉮ 국문: **배움중심수업 2.0의 이해와 실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2016-10).
- Jung, C. H. (2019). Critique of ‘learning-centered lesson’ based on Dewey’s ‘transaction’ concept: transition from separation and alienation to situ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33(4), 179-201. ㉮ 국문: 정철희(2019). 듀이의 Transaction 개념에 근거한 ‘배움중심수업’ 비판: 분리와 소외를 넘어서 상황으로의 전환. *교육사상연구*, 33(4), 179-201.
- Kang, H. S., & Lee, J. E. (2013).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backward design version 2.0.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3), 153-172. ㉮ 국문: 강현석, 이지은(2013).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2.0 버전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31(3), 153-172.
- Kim, G. S. (2015). *The study of learning-centered Pansori’s educational method for developing students’ creative and intellectual capability : Centered on a club for the third and fourth graders* (Unpublished mater’s thesis). J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국문: 김근수(2015). **창의지성 역량 계발을 위한 배움중심의 판소리 교수·학습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Kim, J. H. (2016). The development research of ‘speaking’ unit of the korean speech field by backward design model.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60, 87-118. ㉮ 국문: 김진희(2016).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른 국어과 화법 영역 ‘연설하기’ 단원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연구*, 60, 87-118.
- Lim, H. S. (2017). *A study on plans for learning-centric project music less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With a focus on physical expressions and musical creativity* (Unpublished ma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 국문: 임혜숙(2017).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배움중심프로젝트 음악수업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MOE (2016). *2015 Revised Curriculum*. (11-1342000-000188-01).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국문: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제11-1342000-000188-01호. 세종: 교육부.
- Nam, M. J., Ghil, H. J., Oh, C. O., & Roh, S. K. (2014). The feature and meaning of learning oriented class though teachers’ reflective writing.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 59-86. ㉮ 국문: 남미자, 길현주, 오춘옥, 노시구(2014). 교사들의 반성

- 적 글쓰기를 통해 본 배움중심수업의 특징과 의미. **시민교육연구**, 46(1), 59-86.
- Oh, Y. B. (2019). Exploring directions through analysis of meanings of learning centered classes: based on the practi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4), 107-132. ㉮ 국문: 오영범(2019). 배움중심수업의 의미 분석을 통한 방향 탐색: 초등교사의 실천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2(4), 107-132.
- Ohn, J. D., Kim, K. J., Kim, H. Y., Ryu, B. R., Park, S. Y., Park, J. H., Yang, S. Y., Yun, J. Y., & Jung, H. S.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Books for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Capacity*.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국문: 온정덕, 김경자, 김해윤, 류보라, 박선영, 박지현, 양소영, 윤지영, 정혜승(2016).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Shin, C. H. (2007). The meaning of 'learning' in oriental education tradition : Focused on the debates of original confucianism.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3, 141-166. ㉮ 국문: 신창호(2007).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3, 141-166.
- Tomlinson, C. A., & McTighe, J. (2012). *Integrat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 Understanding by Design Connecting Content and Kids* (2nd ed.). (K. J. Kim, J. D. Ohn, & S. B. Jang, Trans.). Seoul, Korea: Hakjisa. ㉮ 국문: 김경자, 온정덕, 장수빈 공역(2013). **맞춤형 수업과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통합: 초등예비교사들의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